

# 천축사 무문관 수행은 눈 밝은 남자들의 무언의 계승

## 현대 불교수행의 상징 천축사 무문관(天竺寺 無門關)

불교의 본령은 수행이다. 수행이 되어 포교가 된다.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는 물론이요 중국과 한국 그리고 동남아에서 수행의 치열함이 있을 때 불교가 발전했다.

현대에 이르러 한국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포교가 안 된다고 한다. 앞으로 불교인구가 줄어 위기를 맞는다는 견해도 있다. 젊은 층의 신앙분포를 보면 타종교가 앞선다. 타종교의 열성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불교의 수행이 그들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반문해 본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대중들의 절대적 호응을 받았던 시대를 보면 그 저변에 치열한 수행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으로 볼 때 불교에서 수행은 절대적 가치라고 말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 10월 5일 도봉산 기슭에 있는 천축사 무문관이 폐관 30여 년 만에 복원됐다. 예전과 달리 비록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치열한 수행의 이미지는 아니지만 현대 불교수행의 상징성이 복원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천축사 무문관은 1964년 육영수 여사의 보시로 건립되기 시작했다. 다음해 12월 27일 낙성된 무문관에 제선·홍근·혜원·관음 등 모두 22명의 납

었지만 단절은 또 다른 번뇌를 만든다. 세상과 담을 쌓으면 평상시 관심 없던 일들도 스멀스멀 머릿속에서 빠져나와 번민이 됐다.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서 원하지 않으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했다. 결국 싸움에서 패배한 수행자는 하나 둘 그곳을 나갔다. 1972년 4월 28일 6년 결사를 마치고 보니 회향한 수행자는 관음·경산·지효·현구·석영 등 5명이었다. 중도에서 그만둔 17명의 수행자의 근기가 약한 것이 아니라 5명의 수행자 근기가 높았던 것이다. 세상과 등지고 6년이란 시간 동안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은 평범한 근기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이 증명됐다.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해 11월 16일 시작된 제2차 결사는 성운, 무불 원공 등 5명의 납자가 임제했다. 제1차 결사를 통해 무문관 수행의 어려움이 알려졌기 때문에 참여자가 적었다. 그래서 정예의 수행자만이 온 탓일까. 이들은 1978년 11월 10일 6년의 수행을 마치고 회향했다. 이들을 끝으로 그 후 3차 결사는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1979년 천축사 무문관은 폐쇄됐다.

12년에 걸쳐 두 번 행해진 무문관 수행은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불교의 변질에도 지속된 수행전통과 광복 이후 승풍을 회복하려는 움직임과 사상적 맥락이 같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일본불교의 영향에도 한국불교가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은 율곡은 남자들의 수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문관의 수행처럼 외부와 단절된 채 수행한 것으로 한암과 효봉이 유명하다.

먼저 한암은 1921년 건봉사 결사를 끝으로 1925년 잠시 봉은사 조실로 있다가 1925년 스스로 맹세하기를,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필지언정 춘삼월에 말 잘하는 앵무새는 배우지 않겠노라" 하고 오대산에 들어가 선 염불 간경 의식 수호가람 등 승가 오직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은 후 27년 간 동구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효봉은 38세가 되던 1925년 음력 7월 8일 외금강산 신계사 보운암(普雲庵)에서 석두(石頭)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늦은 나이에 출가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컸다. 출가 다음해인 1926년부터 용성과 수월 등 선지식을 친견하고 법을 묻는 등 정진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마음이 급했던 효봉은 결단을 내렸다. 1930년 43세가 되던 해 금강산 법기암(法起庵) 뒤편에 토굴을 짓고 '일일식장좌불와(一日一食 長坐不臥)'의 필사적인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그 후 1년 6개월의 수행 끝에 1931년 여름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수행을 현대에 계승한 수행자가 성철이다. 그는 1955년 전쟁이 휴전과 종전의 정화라고 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대구 팔공산 파계사 암자인 선전암에서 10년 동안 철학을 치고 신도들의 접근을 막고 동구불출의 수행을 했다.

천축사 무문관 수행은 없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불교 정체성이 무엇인지 끊임 없이 탐구한 눈 밝은 남자들의 무언의 계승이다.

광복 후에도 한국불교 상황은 녹초지 않았다. 3년간 실시된 군정기간 동안 한국불교계는 미국을 통한 서양문화의 유입과 기독교 선교라는 새로운 변화와 함께 진일불교의 적절이라는 이종교를 해결해야 했다. 독립운동 경력을 가졌던 불교계 인물들은 교정 혁신을 위해 기존 종단의 간부들을 해임시키고 8인의 위원으로 '조선불교혁신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남한의 60여 승려가 참여한 대위원회를 개

한암과 효봉 스님, 외부 단절 수행 대표적 효봉 스님은 수행자들과 총림 규약 제정 동구불출 현대적 계승한 성철 스님은 봉암사 결사로 중풍 회복 주도하기도



최근 복원된 무문관은 시민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최해 재정부를 구성했다. 이들은 일제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31부산제를 폐지하는 한편 13도(道)에 교구를 두고 교무원을 신설했다.

새로운 집행부가 된 교무원은 1946년 8월 모범총림을 시설했. 선, 교, 의식 등으로 도제를 양성하려 했다. 이 안은 중앙총회에서 결의돼 1946년 10월 합천 해인사에 재단법인 가야총림이 설치됐다. 그리고 11월 6일 송광사에 주석하고 있던 효봉을 조실화상으로 위촉했다.

송광사 회주로 있던 효봉은 이미 1946년 7월 15일 하안계 해제일에 삼일선원에서 '약미발명사(若未發明大事)면 서불하산(誓不下山)'이란 발원과 함께 동구불출(洞口不出) 오후불식(午後不食) 장좌불와(長坐不臥) 묵언(默言)의 청규를 정해 3년 결사에 정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보다 한국불교 전체를 생각하고 송광사에서 해인사 퇴설당으로 옮겨왔다. 그의 수행력을 의의 알고 있던 인곡·순호·구산·법홍·석호·금담·혜진 등 사방의 수행자가 모여 대 회상을 이루었다. 이후 해인사에서는 사유 토지를

분할해 재단법인을 만들어 한국불교의 혜명상속(慧命相續)과 우리 승단의 청구호지(淸規護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그리고 남자들이 운집하자 총림의 규약을 제정하면서 결사는 한층 더 공고히 진행됐다.

이런 총림과 달리 성철은 개인적인 결사를 주도했다. 1947년 문경 회양산 봉암사에서 선종 본래의 종풍을 회복하고 옛 총림의 법도를 이 땅에 되살리고자 결사를 주도했다. 이곳에 뜻을 같이하는 도반과 젊은 수행자들이 운집했다. 그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참여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정담·향곡·자운·월산·혜암·법전 등으로 이들은 해방 후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교단의 초석을 세웠다. 이들에 의해 교학연찬, 참선수행, 대중포교라는 근본적 의미를 상실한 교단과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기복적 형식의 의례 그리고 한국불교 속에 스며든 일본불교의 수행풍토가 시정될 수 있었다.

효봉과 성철의 수행은 모두 한국전쟁 때문에 불가

피하게 무산됐지만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결사운동이었다. 이런 결사의 생활은 지금까지의 승가생활을 크게 변화시켜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천축사 무문관 수행은 한국불교 평화운동 가운데 진행됐다. 일본불교의 영향을 적절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불교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다. 그런 과정에서 12년 동안 진행된 수행은 앞선 수행과 사상적 맥락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무문관이기에 때문에 30여 년 만에 복원은 단순히 건물의 복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은 비록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명상과 묵언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라 하지만, 언젠가 눈 밝은 남자가 있어 다시 한 번 치열한 수행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김경집/전주대 교수

천축사 무문관 30년 만에 복원  
현대 불교수행의 상징적 의미 내포  
22명 남자 깨달음 얻고자 6년 결사  
무문관 수행 승풍 회복 노력과 일치

자가 6년 결사에 참여했다. 모두가 부처님과 같이 6년을 수행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다. 시작은 쉬웠으나 마지막까지 남기는 어려웠다.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자신의 의식을 옥죄었다. 예전에는 그냥 흘러 버린 바람과 빗방울 소리 하나가 정답게 느껴졌다. 모든 인연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이



천축사 무문관이 30년 만에 복원돼 10월 5일 개관법회가 열렸다.



무문관 개관법회에 참석한 불자들

###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제조방법) 특수제착한수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온열요법과 오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양 위기 식물 177종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출판사 | 감상책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도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 100% 국내산 참옷나무 진액 참옷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옷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옷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 옷에도 고품질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로 주산지를 찾아 매달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옷물을 만들었습니다.

▶ 옷에 대한 슬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옷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옷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